환경보호를 보는 유교적 시각

박 성 진 / 성균관 기획실장

1.

문명의 발전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나타나며 과학기술의 自己增殖은 필요한 것은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무분별하게 생산해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주변자연의 정화만으로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은 제고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21세기가 인류역사상 최후의 세기가 될것인가 라이프니쯔가 말한대로 最良의 세기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공장,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 소음, 교통난,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공해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공해는 소득이 높아지면 외관상 정화될 소지는 있으나 관계당국과 특정단체의 능력만으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고도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정책이나 권력의 수단에 의한 환경문제해결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의 확산이며 환경보호는 神에대한 외경심, 이웃에 대한 사랑, 후손에 대한 애정의 발로라는 사명의식을 주지시켜야 하며 여기서 각 단체의 환경보호운동과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2.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동양과 서양간에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동양의 전통적 관념 가운데에서도 특히 과거 2000여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왔던 儒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유교의 전통적 관념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지구전체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부터이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와서야 비롯되었다. 따라서 산업사회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된 유교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산업사회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유교적 관념을 살펴보는 것은 비록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분석과 대안의 제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은 보호를 통해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미 보호하는 달은 인간의 기득권에 대한 수호를 전제로 한 표현에 불과하다. 보호에 앞서 인간이 환경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념의 창출에 있어서 유교는 그 실천원칙에는 이념적 한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원리에 반추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념적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연에 대한 유교의 전통적 인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간과 대립되는 대상물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교적 관념에 있어 자연은 서양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응하고 극복하고 가공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물론 인간은 만물의 영장, 즉 자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인간의 역할은 자연을 가공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 참여하고 자연의 변화와 하나(合一)가 되는 데에 있다. 자연은, 그리고 자연의 순조로운 변화는 만물을 소생시키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더 할 나위없이 고마운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연에 대한 이같은 관념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개념이 유교에 있어서의 '萬物一體의 仁'이라고 하는 개념일 것이다. 유교에 있어서의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사랑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일 뿐이다. 무턱대고 '남'을 사랑하라는 추상적인 요구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미루고 확장하여 그 마음으로써 '남'을 사랑하고 나아가 '萬物'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存在하는 모든 것에 대한 一體感'으로 설명되는 '萬物一體의 仁'인 것이다.

3.

産業社會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西歐化(Westnizition)라고들 한다. 서구화는 사회 변화 과정에 發展(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양에서의 자연변화는 순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순환이론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자연의 변화에 바탕한다. 겨울에 陽을 태동하여 봄을 지나고 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 여름이 지나면 음을 물어 다시 가을로, 그리고 겨울로 돌아가는 태극의 꼬리가 서로 물려나가는 형상을 나타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양적 사유, 특히 유교에 있어서 인간이란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순환하는 자연의 理法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으로써 살아가는 도리인 生生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크나큰 재앙을 자초하는 것으로 믿고 살았다. 그래서 고대에는 자연의 재앙이 닥치면 나라 군주의 덕이 부덕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왕을 내모는 易姓革命의 명분으로 삼기도 한 적이 있다.

동양철학에서 이렇듯 순환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자연 변증법이 발전해 온 것에 비하여 서양에서의 사회변증법이나 역사 변증법에서는 단선적인 발전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그것은 곧 기준에 진행되고 있는 '正'은 항상 새로운 발전을 위한 '反'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 '正'과 '反'이 合하여 새로이 발전된 모습으로 사회와 역사가 변화해 간다는 것으로 관념변증법에서나 유물변증법에서 공히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서구 유목민족들이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서구적 사유의 전형을 이루었다는 가정을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유목민족의 생존의 기본조건인 잦은 이동과 침략, 전쟁 등을 그러한 서구적 사유의 원초적인 형태로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싸워서 정복하는 자만이 수많은 노예와 많은 짐승들을 차지 할 수가 있게 되고 패배하는 자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는 오직 적이냐 동지냐 라고 하는 분명한 상호관계의 설정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이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더 많은 노예와 훌륭한 무기, 충분한 양식이 '正'이 되고 정복이라는 '反'의 과정을 거쳐 세계제국 혹은 절대세계(Idea)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발전한다"라고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오직 기존의 것들과의 투쟁이나 대립, 파괴등을 통해 성립이 된다.

4.

그러나 동양적 사유의 전형은 이러한 단선적 발전을 지양한다. 발전을 위해 대립하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 파괴의 주체 즉, 인간에 대한 자연의 응징이라고 하는 결과를 함께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천지변화와 日月運行原理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사람을 大德 혹은 聖人이라고 하며 능히 天地化育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최고의 덕으로 친다.

이러한 속에서 인간은 자연의 조그만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인간은 자연의 변화속에 변화의 대세에 순응(順天)하는 미미한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자연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크나큰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주역이 3천년동안 가르쳐온 기본 진리인 것이다.

절대자연의 변화앞에 순응하는 동양적 사유 전형의 파괴는 서구화라고 하는 산업사회와 더불어 시작된다. 인간을 위해 파괴해야 하는 자연, 생존을 위해 대립해야 하는 자연으로 서있는 한, 자연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대응으로 되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5.

유교는 천지인의 조화로움을 철학적 이념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天地人(물, 땅, 사람)의 조화란 상생하는 理致위에 바르게 서있을 때만이 가능한 원리이다. 이 원리를 지탱하는 큰 줄기는 相存의 大德, 즉 천지(자연)에 대한 경외와 자연에 깃들이고 있는 인간의 겸손이다.

다시 자연에 대한 경외는 내 스스로가 그 원리의 일부분임을 자각하는데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生生의 원리 속에 스스로를 자리잡게끔 하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지 한다. 대학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格物致知란 결국은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스스로 넓혀 가는 과정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격물치지는 산업사회속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종이만이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한 방울의 물, 종이 한장이 이러한 생생의 자연과 관계지워지는 원리의 반추를 통해, 그 원리를 반추토록하는 그리고 사유의 전형을 되살리는, 천지인의 지위에 배려되는 교육적 환경과 체계속에서 재생될 수 있다. 인간도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사유의 전형으로 재생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경외는 동양인들이 지녀왔던 사유의 한 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은 자연질서에 대한 인간의 접근방식의 큰 틀을 말한다. 겸손은 스스로를 맞추고 대상을 위해 양보하는 투쟁에 대한 반대개념에 속하나 동양적 사유에서는 가장 높은 미덕으로 친다. 인간의 겸손이라는 미덕은 인간이 이 자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로 부터 나온다. 주역에서 '亢龍'(가장 높이 올라간 용, 극단적 지위나 극도의 대립상태)은 '有悔'(후회가 있다)라고 했다.

동양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가장 높은 지위를 의미 한다. 그러나 군주에 대한 숫자는 10을 사용하지 않고 9를 쓴다. 끝까지 올라간 후의 다음 차례는 곤두박질밖에 없다. 자연에 대한 극도의 도전은 인간을 곤두박질치게 한다. 겸손은 마음의 욕심에 대해 궁극처량 남겨두는 배려-의지-라 할 수 있다.

환경은 보호를 통해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미 보호라는 말은 인간의 기득권에 대한 수호를 전제로 한 표현에 불과하다. 보호에 앞서 인간이 환경의 일부분이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념의 창출에 있어서 유교는 그 실천원칙에는 이념적 한계를 가진다 할 지라도 원리에 반추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념적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와 겸손은 환경과 相生하는 유교적 기본이념이다. 의식의 전환 없이는 보호에 불과하다. 보호는 이미 비보호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 보호라고 하는 서구적 개념과 방식에는 먼저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음을 경계코자 하며 그러한 보호가 동양적 심성이 반추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는다.